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남 수 진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남 수 진

# 인 준 서

남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봄으로서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음악 전공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한 문헌연구와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결정, 진로미결정, 결단성 부족 등을 통해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를 파악하여 현재 자신이 부족한 요인을 보충하여 진로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작곡 전공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진로인식, 희망진로 인식, 진로결정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총 140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설문지는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 통계분석(SPSS),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피어슨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은 93.6%의 학생들의 전공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졸업 후 진로를 자신의 전공에 맞게 설정하고, 선택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을 요인별로 보았을 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 49.3%, 세우지 않은 학생 50.7%로 이들의 진로계획유무에 따라서는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시도 될 수 있도록

음악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 정의.....	3
4. 선행연구 고찰.....	5
<b>II. 이론적 배경</b> .....	<b>11</b>
1. 진로와 진로교육.....	11
2. 대학생의 진로발달.....	16
3.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	20
4. 진로의사결정수준.....	26
<b>III. 연구방법</b> .....	<b>29</b>
1. 연구대상.....	29
2. 연구절차.....	29
3. 연구도구.....	31
4. 자료처리 및 분석절차.....	35
<b>IV. 설문분석 및 결과</b> .....	<b>36</b>
1. 전공 선택요인 및 만족도.....	36
2. 작곡 전공생들의 진로인식.....	39

3. 작곡 전공생들의 희망진로에 대한 인식.....	45
4.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59
5. 종합토론.....	70
<b>V.결론.....</b>	<b>73</b>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표 II-1> 진로의 정의.....	11
<표 II-2> 진로교육의 정의.....	13
<표 II-3> 진로교육단계.....	14
<표 II-4> 진로발달이론에서 대학생의 특성.....	19
<표 II-5> 작곡 관련 직업.....	21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9
<표 III-2> 설문지 구성내용.....	31
<표III-3> 하위영역 신뢰도 측정결과.....	34
<표III-4> 진로결정수준 조사도구.....	35
<표IV-1> 작곡 선택요인 및 만족도.....	37
<표IV-2> 전공 만족도.....	38
<표IV-3> 작곡 관련 직업 인식.....	39
<표IV-4>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	40
<표IV-5>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학년별 준비시기.....	41
<표IV-6> 학년별 진로관심도.....	42
<표IV-7>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 진로관심도.....	43
<표IV-8>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 진로관심도.....	44
<표IV-9> 학년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	45
<표IV-10>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46
<표IV-11>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48
<표IV-12>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49
<표IV-13>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50
<표IV-14>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51

<표IV-15> 직업별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	52
<표IV-16>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53
<표IV-17>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	55
<표IV-18>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56
<표IV-19>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57
<표IV-20>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58
<표IV-21> 학년별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	59
<표IV-22> 작곡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기술적 통계.....	60
<표IV-23> 학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61
<표IV-24> 학년별 직업정보 부족 차이.....	62
<표IV-25> 학년별 자기명확성 부족 차이.....	63
<표IV-26> 학년별 결정력 부족 차이.....	63
<표IV-27> 학년별 필요성 인식부족 차이.....	64
<표IV-28> 학년별 외적 장애 차이.....	65
<표IV-29> 학년별 사회인식 부족 차이.....	65
<표IV-30>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66
<표IV-31>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67
<표IV-32> 진로계획 설정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상관관계.....	68

## 그림 목 차

<그림 II-1> 진로교육의 지도단계 .....	15
<그림 II-2> 학자별 진로발달단계 .....	18
<그림 III-1> 연구절차 .....	3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정보화, 전문화되어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직업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2012 한국 직업사전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으로 분류하여 직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본 직업 233개, 관련 직업 225개, 유사명칭 180개로 총 638개의 직업을 수록하고 있다.<sup>1)</sup> 이들 중 상당수의 직업은 학력이나 자격보다 창의적 재질이나 자질을 요구하며, 직무 특성상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통합 되어 있는 직업소개로 인해 국악·서양음악을 전공한 자들을 위한 음악관련 직업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직업정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악을 전공한 자들은 해마다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그만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의 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관현악 전공 학생의 대부분의 희망 진로 분야가 전문연주가, 음악교육자 순으로 전체 학생의 80%이상 연주자 혹은 음악교육자로 나타났다.<sup>2)</sup>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 12.4%, “잘 모르겠다” 8.4%, “음악 외 분야” 4.5%등 전체의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 하고 싶으나 대부분 레슨이나 음악 학원 운영 등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의 한국 교육통계 연구센터(2015)<sup>3)</sup>에 따르면 2014년도에

---

1) 한국고용정보원(편) (2011). 2012 한국 직업사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 이보아라(2012). “관현악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공 교육과정 비교-서울 소재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3)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5). 취업통계연보 <http://kess.kedi.re.kr>

졸업한 국내 음악 전공자들은 6,01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여학생은 4,746명이다. 전체 음악대학 졸업생 중 1,144명이 취업을 하였고, 804명은 진학하여 22.9%의 취업률과 13.4%의 진학률을 기록하였다. 작곡과는 365명의 졸업자중 282명이 여학생이다. 전체 작곡과 졸업생 중 143명이 취업 하였으며 41명이 진학하여 25.1%의 취업률과 11.2%의 진학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악과 19.0%의 취업률, 성악과 26.8%의 취업률로 음악대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음악대학생 중 작곡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현재 진로 인식이 어떠한지,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로지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수준을 의미하며<sup>4)</sup> Walker & Tracey(2012)가 말하기를 진로결정은 개인의 미래와 관련된 결정으로써 개인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래가 현재와 과거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Osipow(1999)는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이르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진로결정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선택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곡 전공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다. 이는 타 분야로 진로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확신이 없으며,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

---

4) 고향자(1992). “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재인용.

5)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p.2 재인용.

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작곡 전공생을 중심으로 진로의사 결정수준을 알아보고, 설문지를 통해 전공 선택요인과 관심도 및 진로인식을 파악하여 올바른 인식개선과 작곡과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대학 작곡 전공생들의 작곡 선택요인과 전공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2) 음악대학 작곡 전공생들의 학년별 진로인식은 어떠한가?
- 3) 작곡 전공생들의 학년별, 직업별 희망 진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 4)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수준이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 가. 진로

진로는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로 ‘인생전반의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6)</sup>

---

6) 이지연, 윤희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8.

#### 나.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교육이념으로서 개인의 진로선택 및 적응과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7)</sup>

#### 다. 진로발달

진로발달이란 전 생애를 거쳐 직업선택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발달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sup>8)</sup>

#### 라.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은 인간이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한 것처럼 진로와 관련한 직업에 대한 태도, 지식, 가치관, 의사결정 과정 역시 단계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sup>9)</sup>

#### 마. 진로의사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수준이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10)</sup>

---

7)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2000). **진로지도와 상담**. 영남대학교출판부, p.84.

8) 임경희 외 11(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p.16.

9) 이근매, 양종국(2015). **콜라주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85.

10)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2000) **진계서**. 영남대학교출판부, p.158.

#### 4. 선행연구의 고찰

‘음악 전공자의 진로’를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 및 다양한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학 교과과정을 통한 진로인식과 관련하여 음악전공자들의 다양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영화, 성정은<sup>11)</sup>이 제시하는 바에는 음악대학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음악계의 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필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 9개의 음악대학을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과목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직업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그 과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분석하여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연주자와 교수자 중심의 직업관을 가졌던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정환호, 최진호<sup>12)</sup>는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와 음악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이 이에 적합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연구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졸업 후 예상하는 진로,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졸업 후 진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검사도구인 MCCAII로 조사하여

11) 기영화, 성정은(2012). “음악전공자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5권 pp.125-147.

12) 정환호, 최진호(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42(2), pp.161-183.

PAS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타고난 재능이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과정 적합도는 낮았다. 교과과정 적합도는 피아노과가 가장 높았으며, 진로와 연관된 음악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분석한 결과로는 실제적인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실기외의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점진적으로 시켜 나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이나영<sup>13)</sup>은 교육과정 지향방안을 음악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음악전공자들이 전문 음악인으로서 사회 직업현장에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학제간의 연계와 교육과정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기대하는 직업선택의 기초자료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연구 방법으로 전공영역에서 연주활동 확대를 위한 관련 교과와 음악분야의 실용적인 교과영역의 교육과정을 서울의 7개의 대학교와 대구·경북권 소재의 3개의 대학교를 토대로 비교·분석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전공자들이 진출 할 수 있는 직업 및 직종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학제간의 연계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음악전공자의 직무를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음악대학 교육과정의 지향방안으로 다양한 연주가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상블교과의 증설과 전공중심 체제를 통한 실용 교과목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수 전공제도를 활성화하여 음악 전공자들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융합교육을 자유롭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기획적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해 이영하<sup>14)</sup>가 제시하는 바에는 서양 음악 전공

---

13) 이나영(2011).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지향방안에 대한 연구-음악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가 제한적이거나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경영의 개념을 확립하고 현재 음악대학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기획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 음악 산업과 예술 경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음악대학 교육제도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4년제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과 예술대학 및 신학대학교를 포함하여 음악계열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전의 4개 학교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 음악대학의 사례를 제시하여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직업과의 연계를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음악 양성이 필요하고,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음악대학 교육목표는 전공학생들의 음악적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예술경영 분야를 음악전공자가 인지하여 자신의 음악활동에 적용하고 기획력이 갖추어진 전공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생성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된 논문과 학술지를 통해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과 진로가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발달로 다양한 진로를 창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음대생의 진로 인식’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로, 음대생들의 직업세계 인식을 연구한 주희선<sup>15)</sup>은 음악 전공생들의 진로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음대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 기악, 성악, 작곡, 피아노 전공 등 서양음

---

14) 이영하(2011). 기획적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한 음악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5)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pp.107-120.

악 전공생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에 관한 인식과 직업탐색 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희망 진로가 연주가에 편중되어 있지만 자신의 진로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다소 높게 나왔다. 직업 탐색 활동의 결과로는 희망직업 외에 다른 직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결과가 높았으며 음대의 취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음대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이보현<sup>16)</sup>이 제시한 바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진로성숙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피아노 전공 3,4학년을 대상으로 변인에 따른 진로인식과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상태를 이해하고 현 시대에 맞는 진로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3,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검사도구인 CMI를 사용하여 진로성숙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자신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며 진로인식을 하고 있으나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승민<sup>17)</sup>은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 역량의 관계를 밝힘으로 음악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정책적 지원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연구 방법으로 13개의 학교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대학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 진로탐색 경험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55문항을 설문지를 통한 응답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은 전공과 학년, 진로탐색경험

---

16) 이보현(2013).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7) 이승민(2013).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의 유무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진로탐색경험은 진로결정수준의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직업 및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하여 김지선<sup>18)</sup>은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진로를 결정했음에도 진로 준비를 하지 않는 유형이 많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업세계를 조사하고 의사결정을 도와 실제적인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진로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진로결정태도와 관련하여 류지호<sup>19)</sup>는 무용전공 여대생들과 일반전공의 여대생들의 진로인식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의식개선과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검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전공생보다 무용전공생이 진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무용전공생은 진학을, 일반전공생들은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반 전공생들과 달리 무용전공생들은 상대적으로 전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앞서 말한 교과과정을 통한 진로인식을 관련된 논문 및 학술지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교과과정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음악도 다른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

18) 김지선(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성격과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19) 류지호(2011).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분야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 주어 보다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음대생의 진로 인식 관련에 있어서 현 시대의 음악 전공생들이 졸업 후 어떤 방향의 진로를 선택하였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다른 일반 전공생들보다 빠른 진로선택을 하기는 하였으나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낮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직업교육 및 다양한 예술분야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인지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전공자나 음악전공자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대부분 기악과, 성악과에 대한 언급이 높으며 작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인식 및 준비 등에 대한 기초 자료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검사하는 도구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다양한 하위요소를 알 수 없고 진로미결정수준에만 초점을 두어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에서 연주와 이론을 병행하는 작곡 전공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진로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며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소를 세분화 하여 그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작곡전공생의 진로인식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대상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음악 대학 전공생들의 진로인식 및 선택과 진로의사결정수준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 1. 진로와 진로교육

#### 가. 진로의 정의

진로는 영어의 career, 프랑스어의 carrière이며, 어원으로는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 간다’는 뜻의 라틴어 ‘carro’에서 유래되었다. 사전적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각도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II-1).<sup>20)</sup>

<표II-1> 진로의 정의<sup>21)</sup>

진로의 정의	
Hoyt(1974)	인간이 일생을 통해 하는 일을 총칭, 삶의 중핵이며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길
Mcdaniel(1978)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수행하게 되는 연속적인 일이나 여가 모두를 포함하는 ‘생활방식’

20)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1, 직업진로분야,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p.7.

21)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20.

Hansen & Keierleber(1978)	개인이 자신의 가족, 일, 교육과 관련되는 선택을 할 때 도와주는 모든 행위
Raynor & Entin (1982)	개인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의 성공과 실패, 현재의 적성 또는 재능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진로에 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란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일생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2)</sup>

#### 나. 진로교육<sup>23)</sup>

21세기는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직업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창의력, 정보화 능력, 학습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성을 가지는 인재를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이다.<sup>24)</sup>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진로교육은 개인이 장래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응하여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돕는 교육이다. 그리고 진로와 마찬가지로 진로교육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표 II-2).

22)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서울: 정민사, p.12.

23) 김충기(2004).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pp.23-31.

24) 박윤희(2013).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 서울: 시그마프레스, p.8.

<표II-2> 진로교육의 정의<sup>25)</sup>

진로교육의 정의	
Bailey와 Stadt (1973)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지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
Hoyt (1974)	일 지향적인 사회가치에 친숙하게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가치체계 속으로 통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공교육
김충기(1986)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인간교육이다.

<표II-2>에 의하면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및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워서 적응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직업관이 변해감에 따라 진로교육의 개념도 변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게 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점차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면서 진로교육의 개념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교육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25) 김충기 전계서(2004). p.23.

진로교육은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아인식 능력을 길러주지 않고 오로지 주입식 교육에만 치우쳐 자신의 생애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태도 및 윤리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사회적인 측면으로서는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됨으로써 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직업수행에 있어서 생산성과 적응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은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착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발달수준에 따라 알맞게 지도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전문화단계로 정립해 볼 수 있다(표II-3).<sup>26)</sup>

<표II-3> 진로교육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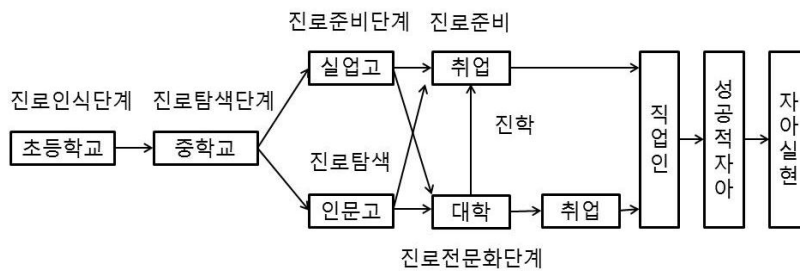
발달수준	행동영역
1. 진로인식단계 (유치원~초등학교 6학년)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를 인식
2. 진로탐색단계 (중학교)	주요 직업영역을 탐색, 자신의 흥미와 능력 평가 및 잠정적 진로를 선택
3. 진로준비단계 (고등학교)	직업훈련에 요구되는 직업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
4. 진로전문화단계	구체적인 직업적 지식을 습득, 특정한 직업

26) 강재태, 배중훈, 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pp.171~172.

(고등학교 이후 및 성인)	분야에 대해 준비
----------------	-----------

김충기와 김현옥(1996)은 이 단계를 토대로 진로교육의 지도 단계를 도식화하였다(그림II-1).<sup>27)</sup>

<그림II-1> 진로교육의 지도단계



진로교육의 내용은 일반적 내용과 발달단계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내용은 직업적 역할과 자아인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등의 내용이 이루어져야한다. 발달단계의 내용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수준에서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수준에서는 진로준비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진로지도와 취업지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흥미와 적성, 능력, 인성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목표와 직업에 맞게 능력과 적성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도하는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27) 김충기 진개서(2004). p.28.

28) 장석민(2014). “진로교육의 기본개념과 철학 및 실천방향”, 27(2). p.46.

## 2. 대학생의 진로발달<sup>29)</sup>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다. 어떤 시기보다 진로 발달이 중요하며 따라서 진로 발달적 측면에서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발달이란 전 생애를 거쳐 최종적인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다양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발달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마다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은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수행해야 할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 학자인 Ginzberg(1951)와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Ginzberg의 발달이론

Ginzberg(1951)는 직업선택의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단계의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는 가치관, 정서적 요인, 교육의 양과 종류, 실제 상황적 여건의 상호작용의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11세 이전의 ‘환상기’에는 현실 인식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단계이며, 놀이를 통해서 직업 활동을 표현한다. 11-17세의 ‘잠정기’는 4가지 하위단계로 이루어진다. 흥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흥미 단계,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단계, 직업선택 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직업 선호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비교하는 가치 단계,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이 장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실인식을 하게 되어 주관적 요소에서 현실적,

---

29) 송원영, 김지영(2013).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pp.91-95.

김충기(2004). 전계서. pp.50-59.

임경희 외11(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pp.16-17. 요약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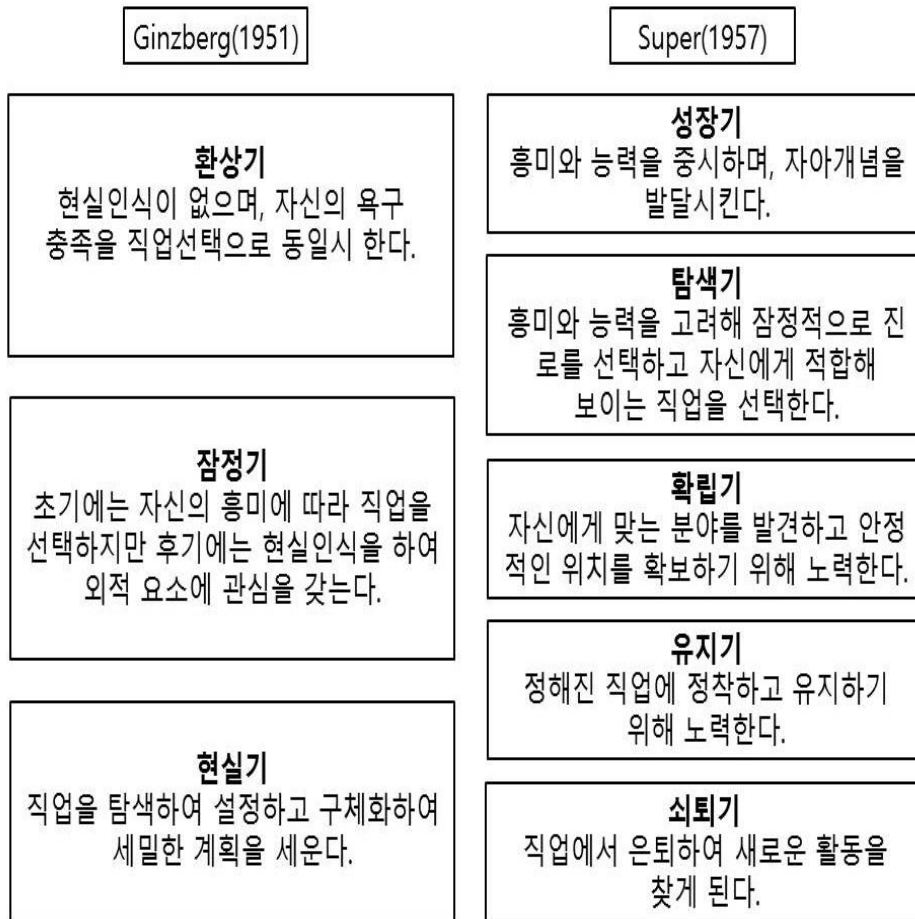
외적 요인에 관심을 돌리는 전환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이 시기에는 흥미나 취미에 따라 직업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17세-성인초기의 '현실기'는 탐색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의 세 가지의 하위 요소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조건과 직업 요구조건, 현실요인을 고려하여 타협해 나간다.

#### 나. Super의 진로발달이론

Super(1953)의 이론은 Ginzberg의 진로발달이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이루어지는 국한된 과정이라고 보았던 진로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된 이론이다. Super는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진로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인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나누어진다.

Super는 출생에서 14세까지의 시기를 '성장기'로 말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의 세 하위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가정, 학교 등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아동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인데, 점차 사회 활동을 통해 현실감이 발달하게 되고,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15-24세까지를 '탐색기'로 이 시기에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세 가지 하위단계를 가진다. 이 시기에는 자아를 검증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직업을 탐색해 나간다. 25-44세까지는 '확립기'로 시행기, 안정기의 두 하위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여 종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5-66세까지는 '유지기'로 안정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후에는 '쇠퇴기'로 직업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단계를 정리해보면 <그림II-2>와 같다.

<그림II-2> 학자별 진로발달단계<sup>30)</sup>



발달적 측면에서 대학생의 핵심적인 과업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이전의 단계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세계에 대해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준

30) 김봉환 외 12 공저(2014).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p.64-66.  
상계서. pp.70-73.  
이희영(2003) 진계서, pp.31-35.  
상계서. pp.50-55. 요약정리.

비하여 최종적으로 첫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진로발달이론에서 대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현실기에 해당되며,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탐색기에 해당된다. 이를 요약하면 <표II-4>와 같다.

<표II-4> 진로발달이론에서 대학생의 특성<sup>31)</sup>

Ginzberg(1951) 현실기(17-24세)	Super(1957) 탐색기(15-24세)
1. 탐색단계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1. 잠정기 흥미와 가치 등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한다.
2. 구체화 단계 직업목표를 정하고, 결정에 관련된 내적·외적요소를 종합한다.	2. 전환기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미래에 가질 직업이나 일을 구체화 한다.
3. 특수화 단계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3. 시행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목표 및 계획을 세워 실제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을 갖게 된다.

31) 임경희 외11 전게서(2015). pp.16-17.

Richard S. Sharf 저, 이재창 외 8명 공역(2008).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pp.239-240. 요약정리.

### 3.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

#### 가. 음악 전공 진로의 종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11년에 출간한 한국직업사전에서,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수록한 총람으로서 9,298개의 직업(11,655개 직업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크게 국악 및 전통예능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음악 전문가, 음악 관련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악기제조 및 조율사, 학교 교사, 대학교수, 예능강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32)</sup>

#### 나. 작곡과의 특성

이론전공과 작곡전공으로 나뉘는 작곡과는 기본이론과 실기 이외에도 피아노부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악의 특성과 각 악기의 구조 및 특성의 파악 그리고 철학적, 문학적인 분야의 연구도 중요하다. 개개인의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더불어 감성적 전문 실기교육을 통해 전문연주자와 음악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sup>33)</sup>

#### 다. 작곡과의 학과 현황<sup>34)</sup>

2015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에서 제공된 작곡과 학과정보에 따

32) 한국고용정보원(편)(2011). **2012 한국 직업사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p.1851-1857.

3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음악학과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36.

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2015). **학과정보: 작곡과**. <http://www.career.go.kr> 2016.09.13

른 학과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014년에 작곡과에 지원한 학생 수는 2,789명이며 입학한 학생 수는 363명이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자료를 통한 취업률은 25.1%이었다.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결과, 졸업 후 첫 직업 분야는 관리·경영·금융·보험 38.5%, 교육·연구·법률·보건 38.5%,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 7.7%, 운송·영업·판매·경비 7.7%, 미용·숙박·여행·스포츠·음식 7.7%로 조사되고 있다. 취업률도 낮지만 취업자 중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음악 및 예술 관련 취업률 또한 매우 저조한 것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작곡과 전공 학생이 졸업 후 어떤 분야에 진출이 가능한지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라. 작곡과의 직업<sup>35)</sup>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음악학부 편을 보면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였다. 총 102개의 직업이 소개되며 교육 27개, 공연활동 27개, 창작활동 16개, 조사·연구 11개, 광고·홍보·마케팅 6개, 문화예술경영 10개, 서비스 6개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직업의 필요조건으로 작곡전공이 기록된 직업을 분류해보면 <표II-5>와 같다.

<표II-5> 작곡 관련 직업

분야	직업 명칭	직무개요
교육	중등음악교사	중고등학생의 음악적 정서와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음악 관련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

3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전게서. pp.24-31.

	가정방문음악 교사	가정에 방문하여 음악관련 학습지의 습득을 지도
	방과후음악 교사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되는 음악수업을 지도
	영유아음악 교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의 초급단계 음악을 지도
	사회예술음악 강사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시설)에서 음악 수업을 지도
	입시음악 지도자	예중 및 예고의 입학을 희망하는 입시생들 대상으로 실기 지도
	클래식이론 지도자	기초음악이론을 입문자에게 알기 쉽도록 지도
	피아노 실기 지도자	성악과의 필수 교과과정인 피아노를 바탕으로 피아노 입문자들을 지도
	음악학원강사	다양한 연령의 사람이 가진 다양한 음악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전수
	오페라 음악코치	오페라 무대에서 음악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역할, 단순히 피아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역할도 담당
공연활동	하우스매니저 (공연장관리자)	연극 등 각종 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관련 종사원의 활동을 관리, 감독
	종교단체소속 지휘자	종교단체에 소속된 합창단 및 음악관련 단체의 연주를 지휘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악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지휘
	건축음향	건물 내에 최적의 음향환경과 청취조건을

	관리자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무대음향기사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제작과 여러 가지 무대공연을 위한 음향장비 관리, 음향 시스템 구성
	종교음악가	종교 활동에 필요한 음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관리
창작활동	오페라연출가	오페라의 무대, 조명, 의상, 연기 등을 총괄
	음반기획자	음반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하고, 구성하는 제반업무를 총괄 및 수행
	클래식작곡가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음악활동의 주체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기 위한 악보의 구성을 담당
	가요작곡가	대중적인 선호도와 취향에 맞추어 음악을 작곡하고 음원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함
	편곡가	음악이론, 성악, 기악 등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음악의 분위기에 맞도록 편곡
	연극음악 연출가	연극연출을 위하여 대본 해석 및 출연자 지도
	무대음악 연출가	극의 스토리와 음악의 형식에 맞추어 무대 세팅을 감독
	방송음악 연출가	라디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
	음악분수 연출자	분수 시설을 이용해 예술적인 분수를 연출 및 기획
	사운드 디자이너	사운드의 기술적인 부분과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동시에 관장하며 엔지니어와 함께 효과적인 사운드 창조

	무대음향감독	각종 공연장 등의 무대에서 무대기계, 무대 조명, 무대음향 등의 전반적인 일을 진행
	드라마음악 감독	드라마의 내용과 배경에 맞는 음악을 제작
	음악방송작가	음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
조사연구	음악이론 연구원	음악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활동과 출판
	클래식음악 해설가	음악관련 주요 시설 및 방송, 단체에서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
	음악서적 번역가	유럽의 언어로 되어있는 음악 서적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
	음악교육 연구원	다양한 대상에 맞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및 교육
	음악심리 치료사	심리, 생리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움
광고·홍보·마케팅	매장음악선곡전문가/음악컨설턴트	각 매장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음악을 선정하고 관리
	문화사업 기획자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문화예술 경영	음악교재출판기회사무원	초·중·고등학생에게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그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다루어 음악에 대한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
	녹음시설업체운영자	학교 입학시험 응시에 필요한 수준 높은 퀄리티와 요구되어진 구성에 맞게 음원제

		작 및 연주 공연기록을 제작
	만화음악 제작자	만화를 제작시 필요한 ost 전반을 기획 제작
	영화음악 제작자	영화의 내용과 배경에 맞는 음악을 제작
	특수효과음향제작자	TV나 영화에서 연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특수효과음을 만드는 일을 담당
	공연전문 인쇄물제작자	공연 예술에 적합한 인쇄물을 제작
	음악방송 PD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음악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
	모바일 음원 제작자	공중파 방송, 드라마, 예능프로를 모바일 콘텐츠 형태로 전환하여 서비스 하는 작업
	행사음악 기획자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음악을 찾아서 프로그래밍하고 적합한 연주자를 캐스팅 또한 연주자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업무담당
서비스	합창단담당자 (사무직원)	전문합창단의 연습일정, 레퍼토리 구성, 연주, 기획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조율사	건반악기나, 현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조율
	음악저작권 관리자	음악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

<표 II-5>와 같이 작곡이 필요조건이 되는 직업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과 관련된 직업세계를 이해한 후에는 작곡 전공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각 직업별로 직업의 성질, 작업조건, 작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정도나 능력, 전망 등 자세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작곡 전공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된다.<sup>36)</sup>

#### 4. 진로의사결정수준

##### 가. 진로의사결정수준 개념

진로의사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진로 미결정,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로미결정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한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들은 진로에 관련된 내담자들을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진로결정을 했다는 것은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즉, 진로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를 ‘결정’, 낮은 상태를 ‘미결정’이라고 한다.

진로미결정은 발달적인 관점과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발달적인 관점에서 진로미결정은 직업을 결정하는 발달의 과정에 존재하는 ‘아직 결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반면, 성격적 특성 진로 미결정은 우유부단한 성격특성을 동반하여 만성적인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유부단함’이라는 성격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정보를 제공하

36) 김충기(2004).진계서, p.515.

37)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 진계서(2000). 영남대학교 출판부, p.158.

더라도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들로 본다. 따라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과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발달적인 미결정자’(undecided)는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따라 나아가는 중이라고 간주된다. 이들은 직업의 세계 및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을 연기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유부단한 사람’(indecision)은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진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못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p>38)</sup>

#### 나.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sup>39)</sup>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Holland & Holland(1977)의 VDMD (Vocational Decision Making Difficulty Scale)는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첫 번째 검사도구이다. 이것은 진로미결정의 측정을 위해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이 만든 VDMD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Osipow등 (1980)에 의해서 개발된 CDS (Career Decision Scale)이다. CDS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미결정에 대해서 16개의 서로 구별되는 선행요인들(distinct antecedents)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Jones와 Chenery(1980)는 결정성, 결정수준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 (comfort with decidedness level), 미결정에 대한 원인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VDS (Vocational Decision Scale)를 개발하였다. VDS는 후에 CDP (Career

38) 김봉환 외 10명(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pp.239-240.

39)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 전개서(2000). pp.159-160.

Decision Profiles)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지역의 4년제 음악대학 총 5곳의 작곡전공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부하여 15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총 140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40	28.6
	여자	100	71.4
학년	1학년	36	25.7
	2학년	42	30.0
	3학년	35	25.0
	4학년	27	19.3
전공	작곡	140	100

#### 2. 연구절차

이 연구는 2016년 2월부터 10월에 걸쳐 약 8개월 간 진행 되었으며,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준비, 설계, 수행, 분석, 정리의 다섯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일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III-1> 연구절차



###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구성은 기초조사 2문항,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관련 3문항, 진로인식 관련 4문항, 이에 대한 하위문항으로 희망진로인식 관련 6문항, 진로결정수준 관련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진로인식, 희망진로인식은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제작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III-2>와 같으며, 최종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III-2> 설문지 구성내용

구분	하위영역	문항 수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2	2
전공 선택 요인 및 관심도	·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도 ·관련 직업 인식	3	3
진로인식	·진로계획 시기 ·진로 관심도 ·졸업 후 희망 진로분야	4	4
희망진로 인식	·희망직업 선택한 이유 ·희망직업에 필요한 학력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했을 때 어려움 ·희망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6	6

진로결정수준	직업정보 부족	5	20
	자기명확성 부족	4	
	결정력 부족	3	
	필요성인식 부족	3	
	외적장애	3	
	사회인식 부족	2	

#### 가.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은 배경적 변인으로서 응답자들을 분류하고,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이다.

#### 나.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문항은 작곡 전공생들의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이다.

#### 다. 진로인식

진로인식 문항은 작곡 전공생들이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작곡전공 학생들의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이다.

#### 라. 희망진로인식

희망 진로인식은 신선미(2007)가 개발한 직업세계인식 설문지를 음악전공에 맞게 사용하였다. 원 설문지의 구성은 희망직업에 관한 인식, 직업탐색 활동, 일반 노동시장에 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업탐색활동은 작곡 전공생들의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인식만을 알고 싶었기에 제외하였으며, 작곡과 학생들에게 일반 노동시장에 대한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sup>40)</sup> 따라서 연구문제 중 작곡전공 학생들이 진로인식 문항 중 졸업 후 원하는 직업에 따른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이다.

#### 마. 진로결정수준<sup>41)</sup>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 이기학(2001)이 개발한 대학생 대상 직업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직업정보 부족 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4문항, 결정력 부족 4문항, 필요성 인식부족 4문항, 외적 장애 4문항, 사회인식 부족문항으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진로결정수준은 <표III-3>과 같이 전체 6개의 하위영역과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0) 주희선(2013). 전게서. p.111.

41) 최화영(2015). 전게서. pp.53-54.

<표III-3> 하위영역 신뢰도 측정결과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진로결정수준	직업정보 부족	5	.855
	자기명확성 부족	4	.899
	결정력 부족	3	.729
	필요성인식 부족	3	.664
	외적 장애	3	.680
	사회인식 부족	2	.754
	전체	20	.845

직업정보 부족은 어떤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모르거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며, 자기명확성 부족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결정력 부족은 매사에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며, 필요성 인식부족은 현 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외적 장애는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인식 부족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남을 의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sup>42)</sup> 조사도구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4>과 같다.

42)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1권. pp.171-172.

<표III-4> 진로결정수준 조사도구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진로결정수준	직업정보부족	5	1,2,3,4,5
	자기명확성 부족	4	6,7,8,9
	결정력 부족	3	10,11,12
	필요성 인식 부족	3	13,14,15
	외적 장애	3	16,17,18
	사회인식 부족	2	19,20

#### 4.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으로 통계학적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으며, 일원분산분석으로 학년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상관분석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들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유의수준은 일원분산 분석( $p < .05$ ), 상관분석( $p < .01$ ,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성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설문 분석 및 결과

이 연구는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  
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결정수준을 학년별 변인  
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전공 선택요인 및 만족도

전공 선택요인 및 만족도는 작곡 전공생들의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작곡을 선택한 요인과 만족도, 작곡 직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한 관련 문항 응답결과를 빈도분석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작곡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유

작곡을 전공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와 같이 작곡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유는 ‘작곡 분야가 흥미로워서’가 74명(52.9%), ‘오  
랜 기간의 음악공부로 인해서’ 23명(16.4%), ‘다른 전공보다 다양하게 음악관  
련 일을 할 수 있어서’ 22명(15.7%),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권  
유로 인해’ 18명(12.9%), 기타 3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 작곡 선택요인 및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한 요인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18	12.9
	작곡분야가 흥미로워서	74	52.9
	오랜 기간의 음악공부로 인해서	23	16.4
	다른 전공보다 다양하게 음악관련 일을 할 수 있어서	22	15.7
	기타	3	2.1
전체		140	100.0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작곡분야가 흥미롭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작곡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 ‘재미있는 삶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진학’을 위해 전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나. 작곡전공 학생들의 만족도

작곡전공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표IV-2>와 같다. 표와 같이 작곡 전공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매우만족 28명(20.0%), 어느 정도 만족64명(45.7%), 보통 39명(27.9%), 불만족 9명(6.4%), 매우불만족 0명(0.0%)으로 나타났다.

<표IV-2> 전공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공의 만족도	매우만족	28	20.0
	어느 정도 만족	64	45.7
	보통	39	27.9
	불만족	9	6.4
	매우 불만족	0	0.0
전체		140	100.0

응답자중 131명(93.6%)이 본인의 전공에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명(6.4%)은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작곡 관련 직업 인식

작곡 관련 직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작곡 관련 직업 인식 결과로는 ‘알고 있다’ 70(50.0%), ‘조금 알고 있다’ 65명(46.4%), ‘모른다’ 5명(3.6%)으로 나타났다. ‘모른다’ 의견을 제외한 학년별 응답비율을 보면 1학년 35명(97.2%), 2학년 39명(92.9%), 3학년 30명(100%), 4학년 26명(96.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작곡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3> 작곡 관련 직업 인식

구분		작곡 관련 직업을 알고 있는가?			전체	
		알고 있다. (5개 이상)	조금 알고 있다. (2~3개)	모른다.		
학년	1	빈도	17	18	1	36
		학년 중 %	47.2	50.0	2.8	100.0
	2	빈도	23	16	3	42
		학년 중 %	54.8	38.1	7.1	100.0
	3	빈도	15	20	0	35
		학년 중 %	42.9	57.1	0.0	100.0
	4	빈도	15	11	1	27
		학년 중%	55.6	40.7	3.7	100.0
전체	빈도	70	65	5	140	
	학년 중 %	50.0	46.4	3.6	100.0	

## 2.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와 계획을 세운 학생의 준비 시기, 학년별 진로관심도와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관심도, 학년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가. 학년별 진로계획

학년별 진로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계획 세운 유무와 그에 따른 진로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준비시기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를 보면 140명 중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은 69명(49.3%), 세

우지 않은 학생은 71명(50.7%)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진로계획 세운 학생’의 비율은 1학년 38.9%, 2학년 40.5%, 3학년 51.4%, 4학년 74.1% 이며, ‘진로계획 세우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1학년 61.1%, 2학년 59.5%, 3학년 48.6%, 4학년 25.9%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계획을 세우는 학생이 적으며, 높을수록 진로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4>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

구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전체	
		진로계획 세웠음	진로계획 세우지 않았음		
학년	1	빈도	14	22	36
		학년 중 %	38.9	61.1	100.0
	2	빈도	17	25	42
		학년 중 %	40.5	59.5	100.0
	3	빈도	18	17	35
		학년 중 %	51.4	48.6	100.0
	4	빈도	20	7	27
		학년 중%	74.1	25.9	100.0
전체	빈도	69	71	140	
	학년 중 %	49.3	50.7	100.0	

진로계획 유무관계에서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계획 시기를 알아본 것으로 그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를 보면 진로계획을 세운 69명의 준비시기 응답률은 1학년 21.7%, 2학년 18.8%, 3학년 31.9%, 4학년 18.8%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계획을 3학년에 가장 많이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학년별 응답으로 보면 1학년의 진로준비 시기는 1학년 64.3%, 2학년의 진로준비 시기는 2~3학년 29.4%, 3학년의 진로준비 시기는 3학년 55.6%,

4학년의 진로준비 시기는 4학년 55.0% 으로 대부분 자신의 현재 속해있는 학년에서 진로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5>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학년별 준비시기

구분		진로를 준비한 시기는?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후		
학년	1	빈도	9	2	2	0	1	14
		학년 중 %	64.3	14.3	14.3	0.0	7.1	100.0
	2	빈도	4	5	5	1	2	17
		학년 중 %	23.5	29.4	29.4	5.9	11.8	100.0
	3	빈도	1	6	10	1	0	18
		학년 중 %	5.6	33.3	55.6	5.6	0.0	100.0
	4	빈도	1	0	5	11	3	20
		학년 중%	5.0	0.0	25.0	55.0	15.0	100.0
	전체	빈도	15	13	22	13	6	69
		학년 중 %	21.7	18.8	31.9	18.8	8.7	100.0

#### 나. 학년별 진로관심도

학년별 진로관심도에서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 학년별로 빈도분석 하였다.

##### 1) 학년별 진로관심도

학년에 따른 진로관심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를 보면 140명 중 131명(93.6%)이 진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6.4%)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이를 학년별로 보면 1학

년(11.1%)이 가장 높고, 4학년(3.7%)이 가장 낮은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표IV-6> 학년별 진로관심도

구분		진로에 대한 관심도					전체	
		매우 많다	많다	조금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학년	1	빈도	15	14	3	0	4	36
		학년 중 %	41.7	38.9	8.3	0.0	11.1	100.0
	2	빈도	15	17	8	0	2	42
		학년 중 %	35.7	40.5	19.0	0.0	4.8	100.0
	3	빈도	13	11	9	0	2	35
		학년 중 %	37.1	31.4	25.7	0.0	5.7	100.0
	4	빈도	14	8	4	0	1	27
		학년 중%	51.9	29.6	14.8	0.0	3.7	100.0
	전체	빈도	57	50	24	0	9	140
		학년 중 %	40.7	35.7	17.1	0.0	6.4	100.0

## 2)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관심도

### 가)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관심도

진로계획을 세운 69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진로 관심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를 보면 ‘진로에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계획을 세운 전 학년 모두 진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7>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관심도

구분		진로에 대한 관심도					전체	
		매우 많다	많다	조금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학년	1	빈도	9	5	0	0	0	14
		학년 중 %	64.3	35.7	0.0	0.0	0.0	100.0
	2	빈도	7	8	2	0	0	17
		학년 중 %	41.2	47.1	11.8	0.0	0.0	100.0
	3	빈도	9	4	5	0	0	18
		학년 중 %	50.0	22.2	27.8	0.0	0.0	100.0
	4	빈도	11	6	3	0	0	20
		학년 중 %	55.0	30.0	15.0	0.0	0.0	100.0
	전체	빈도	36	23	10	0	0	69
		학년 중 %	52.2	33.3	14.5	0.0	0.0	100.0

나)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의 진로관심도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71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진로관심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를 보면 71명 중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진로에는 관심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표IV-8> 학년별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의 진로관심도

구분		진로에 대한 관심도					전체	
		매우 많다	많다	조금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학년	1	빈도	6	9	3	0	4	22
		학년 중 %	27.3	40.9	13.6	0.0	18.2	100.0
	2	빈도	8	9	6	0	2	25
		학년 중 %	32.0	36.0	24.0	0.0	8.0	100.0
	3	빈도	4	7	4	0	2	17
		학년 중 %	23.5	41.2	23.5	0.0	11.8	100.0
	4	빈도	3	2	1	0	1	7
		학년 중%	42.9	28.6	14.3	0.0	11.1	100.0
	전체	빈도	21	27	14	0	9	71
		학년 중 %	29.6	38.0	19.7	0.0	12.7	100.0

다) 학년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

작곡전공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분야는 무엇인지 학년별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를 보면 140명 중 ‘작곡가(54명)’, ‘그밖의 음악 관련 분야(48명)’, ‘음악교육자(22명)’, ‘음악 외 분야(7명)’, ‘잘 모르겠다(9명)’의 순으로 희망직업이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작곡가 52.8%’, 2학년은 ‘작곡가’와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 40.7%’, 3학년은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 42.9%’, 4학년은 ‘작곡가 37.0%’를 희망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작곡 전공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 중 ‘음악 외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 응답이 3, 4학년들에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진로를

희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9> 학년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

구분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					전체	
		작곡가	음악 교육자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음악 외 분야	잘 모르겠다		
학년	1	빈도	19	3	12	0	2	36
		학년 중 %	52.8	8.3	33.3	0.0	5.6	100.0
	2	빈도	17	5	17	0	3	42
		학년 중 %	40.5	11.9	40.5	0.0	7.1	100.0
	3	빈도	8	7	15	2	3	35
		학년 중 %	22.9	20.0	42.9	5.7	8.6	100.0
	4	빈도	10	7	4	5	1	27
		학년 중 %	37.0	25.9	14.8	18.5	3.7	100.0
	전체	빈도	54	22	48	7	9	140
		학년 중 %	38.6	15.7	34.3	5.0	6.4	100.0

### 3. 작곡전공 학생들의 희망진로에 대한 인식

희망진로 인식은 작곡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직업별과 학년별로 선택한 이유, 요구하는 학력, 취업 시 어려운 점, 전공의 일치, 필요한 자격증의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빈도분석 및 차이로 알아보았다. 140명 중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명을 제외한 131명의 응답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직업별 작곡 전공 학생들의 희망진로에 대한 인식

1)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를 보면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71.8%), ‘전공 분야와 일치해서’(19.1%) ‘장래 전망이 좋아서’(3.8%), ‘고용이 안정적이어서’(3.8%) ‘보수(임금)가 좋아서’(1.5%)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는 ‘작곡가’와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를 선택한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보수(임금)가 좋아서’는 ‘음악 외 분야’를 선택한 학생으로 나타났다.

<표IV-10>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구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전체	카이 제곱	P
	적성과 흥미 일치	전공 분야와 일치	장래 전망이 좋다	보수 (임금) 가 좋다	고용이 안정적 이다			
작곡가	빈도	45	9	0	0	0	54	53.465 .000
	%	83.3	16.7	0.0	0.0	0.0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11	7	2	0	2	22	
	%	50.0	31.8	9.1	0.0	9.1	100.0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35	9	2	0	2	48	
	%	72.9	18.8	4.2	0.0	4.2	100.0	
음악 외	빈도	3	0	1	2	1	7	

분야	%	42.9	0.0	14.3	28.6	14.3	100.0		
전체	빈도	94	25	5	2	5	131		
	%	71.8	19.1	3.8	1.5	3.8	100.0		

\*p<0.05

직업별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의 유의수준을 알아본 결과,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분야별 해당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곡가’, ‘음악교육자’, ‘그 밖의 음악관련’ 등의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의 응답이 결과가 나타났으나 ‘음악 외 분야’에서 ‘보수와 임금이 좋아서’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수준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1>과 같다. 표를 보면 작곡가는 ‘학력과 상관없음’(38.9%), 음악교육자는 ‘석사 이상’(54.5%),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는 ‘4년제 대졸’(43.8%), 음악 외 분야는 ‘4년제 대졸’(8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음악 교육자’, ‘음악 외 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에서 ‘학력과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적인 능력이나 학벌을 보게 되는 직업에서 고학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별 희망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유의수준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구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체	카이 제곱	P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석사 이상	학력과 상관 없음				
작곡가	빈도	0	1	15	17	21	54	23.822	.005
	%	0.0	1.9	27.8	31.5	38.9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0	0	10	12	0	22		
	%	0.0	0.0	45.5	54.5	0.0	100.0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0	1	21	18	8	48		
	%	0.0	2.1	43.8	37.5	16.7	100.0		
음악 외 분야	빈도	0	0	6	1	0	7		
	%	0.0	0.0	85.7	14.3	0.0	100.0		
전체	빈도	0	2	52	48	29	131		
	%	0.0	1.5	39.7	36.6	22.1	100.0		

\*p<0.05

### 3)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직업별로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IV-12>와 같다. 표를 보면 작곡가, 음악교육자,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 직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 모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많다'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외 분야는 '육체적으로 힘들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선택한 음악 관련 직업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직업별 희망직업에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유의수준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2>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구분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전체	카이 제곱	P
	어려움 없다	비정규 직이나 계약직 이 많다	근무시간 이 많거나 불규칙하 다	육체적 으로 힘들다	발전가 능성이 별로 없다				
작곡가	빈도	5	27	15	4	3	54	33.803	.001
	%	9.3	50.0	27.8	7.4	5.6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1	8	3	5	5	22		
	%	4.5	36.4	13.6	22.7	22.7	100.0		
그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0	22	15	8	3	48		
	%	0.0	45.8	31.3	16.7	6.3	100.0		
음악 외 분야	빈도	1	0	1	5	0	7		
	%	14.3	0.0	14.3	71.4	0.0	100.0		
전체	빈도	7	57	34	22	11	131		
	%	5.3	43.5	26.0	16.8	8.4	100.0		

\*p<0.05

#### 4)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의 전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업별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3>과 같다. 표를 보면 작곡가는 ‘아주 잘 맞다’(51.9%), 음악교육자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는 ‘그런대로 맞다’가 각각 63.6%, 85.4%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 외 분야는 ‘전혀 맞지 않다’(100.0%)는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IV-13>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구분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의 일치			전체	카이 제곱	P
		전혀 맞지 않다	그런대로 맞다	아주 잘맞다			
작곡가	빈도	0	26	28	54	147.497	.000
	%	0.0	48.1	51.9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0	14	8	22		
	%	0.0	63.6	36.4	100.0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0	41	7	48		
	%	0.0	85.4	14.6	100.0		
음악 외 분야	빈도	7	0	0	7		
	%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7	81	43	131		
	%	5.3	61.8	32.8	100.0		

\*p<0.05

이는 희망하는 직업이 음악과 관련 되어있는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공실기 위주로 교육이 제공 되고 있는 학교 교육상 졸업 후 다른 분야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직업별 희망직업과 전공의 일치도 유의수준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직업별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4>과 <표IV-15>와 같다. <표IV-14>을 보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높게 응답한 직업은 음악교육자(59.15), 음악 외 분야(100.0%)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높게 응답한 직업은 작곡가(87.0%),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62.5%)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 희망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인식의 유의수준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 직업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자격증의 필요성		전체	카이 제곱	유의 수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작곡가	빈도	7	47	54	30.514 .000
	%	13.0	87.0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13	9	22	
	%	59.1	40.9	100.0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18	30	48	
	%	37.5	62.5	100.0	
음악 외 분야	빈도	7	0	7	
	%	100.0	0.0	100.0	
전체	빈도	45	86	131	
	%	34.4	65.6	100.0	

\*p<0.05

<표IV-15>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45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희망관련 직업'(35.6%), '어학관련'(44.4%), '컴퓨터

관련’(20.0%)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작곡가, 음악교육자, 그 밖의 음악관련 모두 ‘어학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이중 음악교육자는 ‘희망직업관련’(76.9%)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는데 자격증 종류로는 교원자격증, 문화예술사자격증, 음악치료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는 컨설팅 자격증, 음향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외 분야’는 Leet(법학적성시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5> 직업별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

구분	필요한 자격증			전체	카이 제곱	P	
	희망직업 관련	어학관련	컴퓨터 관련				
작곡가	빈도	0	5	2	7	20.609	.002
	%	0.0	71.4	28.6	100.0		
음악 교육자	빈도	10	2	1	13		
	%	76.9	15.4	7.7	100.0		
그 밖의 음악 관련 분야	빈도	5	7	6	18		
	%	27.8	38.9	33.3	100.0		
음악 외 분야	빈도	1	6	0	7		
	%	14.3	85.7	0.0	100.0		
전체	빈도	16	20	9	45		
	%	35.6	44.4	20.0	100.0		

\*p<0.05

나. 학년별 작곡전공 학생들의 희망진로에 대한 인식

희망진로를 선택한 131명을 학년별로 작곡전공 학생들의 희망진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학년별 희망진로 인식의 응답결과를 빈도분석 및 차이로 알아보았다.

1)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를 보면 1학년부터 4학년 모두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라는 의견이 많고, 이 응답률은 1학년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보수(임금)가 좋아서’, 의견이 가장 낮았으며 이 응답률은 4학년(7.7%)에서만 응답률이 나타났다. 이는 작곡 전공 학생들의 직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희망직업 선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V-16>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구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전체	카이 제곱	P
		적성과 흥미 일치	전공 분야와 일치	장래 전망이 좋다	보수 (임금) 가 좋다	고용이 안정적 이다			
1	빈도(%)	30 (88.2)	1 (2.9)	2 (5.9)	0 (0.0)	1 (2.9)	34 (100.0)	21.658	.042
	%	31.9	4.0	40.0	0.0	20.0	26.0		
2	빈도	28 (71.8)	9 (23.1)	0 (0.0)	0 (0.0)	2 (5.1)	39 (100.0)		

	%	29.8	36.0	0.0	0.0	40.0	29.8		
3	빈도	21 (65.6)	9 (28.1)	2 (6.3)	0 (0.0)	0 (0.0)	32 (100.0)		
	%	22.3	36.0	40.0	0.0	0.0	24.4		
4	빈도	15 (57.7)	6 (23.1)	1 (3.8)	2 (7.7)	2 (7.7)	26 (100.0)		
	%	16.0	24.0	20.0	100.0	40.0	19.8		
전 체	빈도	94 (71.8)	25 (19.1)	5 (3.8)	2 (1.5)	5 (3.8)	131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 2)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7>과 같다. 표를 보면 '4년제 대졸(39.7%)'의 의견이 가장 많으며, 이 응답률은 4학년이 가장 높았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학력과 상관없음(41.2%)', 2학년은 '4년제 대졸(43.6%)', 3학년은 '석사이상(62.5%)' 4학년은 '4년제 대졸(53.8%)'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력과 상관없다'의 의견은 1학년(48.3%)이 가장 높으며, '석사 이상'의 의견은 3학년(41.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V-17>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구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체	카이 제곱	P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석사 이상	학력과 상관 없음			
1	빈도(%)	0 (0.0)	1 (2.9)	12 (35.3)	7 (20.6)	14 (41.2)	34 (100.0)	22.948 .006
	%	0.0	50.0	23.1	14.6	48.3	26.0	
2	빈도(%)	0 (0.0)	0 (0.0)	17 (43.6)	14 (35.9)	8 (20.5)	39 (100.0)	
	%	0.0	0.0	32.7	29.2	27.6	29.8	
3	빈도(%)	0 (0.0)	1 (3.1)	9 (28.1)	20 (62.5)	2 (6.3)	32 (100.0)	
	%	0.0	50.0	17.3	41.7	6.9	24.4	
4	빈도(%)	0 (0.0)	0 (0.0)	14 (53.8)	7 (26.9)	5 (19.2)	26 (100.0)	
	%	0.0	0.0	26.9	14.6	17.2	19.8	
전 체	빈도(%)	0 (0.0)	2 (1.5)	52 (39.7)	48 (36.6)	29 (22.1)	131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 3)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8>과 같다. 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다(43.5%)’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 응답률은 2학년(53.8%)이 높았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4학년 모두 ‘비정규직이 많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다.

<표IV-18>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구분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전체	카이 제곱	P
	어려움 없다	비정규 직이나 계약직 이 많다	근무시간 이 많거나 불규칙하 다	육체적 으로 힘들다	발전 가능 성이 별로 없다				
1	빈도(%)	4 (11.8)	12 (35.3)	9 (26.5)	4 (11.8)	5 (14.7)	34 (100.0)	13.705	.032
	%	57.1	21.1	26.5	18.2	45.5	26.0		
2	빈도(%)	1 (2.6)	21 (53.8)	12 (30.8)	4 (10.3)	1 (2.6)	39 (100.0)		
	%	14.3	36.8	35.3	18.2	9.1	29.8		
3	빈도(%)	1 (3.1)	15 (46.9)	6 (18.8)	8 (25.0)	2 (6.3)	32 (100.0)		
	%	14.3	26.3	17.6	36.4	18.2	24.4		
4	빈도(%)	1 (3.8)	9 (34.6)	7 (26.9)	6 (23.1)	3 (11.5)	26 (100.0)		
	%	14.3	15.8	20.6	27.3	27.3	19.8		
전 체	빈도(%)	7 (5.3)	57 (43.5)	34 (26.0)	22 (16.8)	11 (8.4)	131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 4)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19>와 같다. 표를 보면 학년별 1학년부터 4학년 모두 ‘그런대로 맞다’

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2학년(32.1%)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전혀 맞지 않다’의 학년별 응답을 보면 1학년, 2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3학년 6.3%, 4학년 19.2%로 증가하고 있으며, 4학년(71.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을 전공과 달리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V-19>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과 현재 전공의 일치

구분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의 일치			전체	카이 제곱	P
		전혀 맞지 않다	그런대로 맞다	아주 잘맞다			
1	빈도(%)	0 (0.0)	23 (67.6)	11 (32.4)	34 (100.0)	14.591	.024
	%	0.0	28.4	25.6	26.0		
2	빈도(%)	0 (0.0)	26 (66.7)	13 (33.3)	39 (100.0)		
	%	0.0	32.1	30.2	29.8		
3	빈도(%)	2 (6.3)	18 (56.3)	12 (37.5)	32 (100.0)		
	%	28.6	22.2	27.9	24.4		
4	빈도(%)	5 (19.2)	14 (53.8)	7 (26.9)	26 (100.0)		
	%	71.4	17.3	16.3	19.8		
전 체	빈도(%)	7 (5.3)	81 (61.8)	43 (32.8)	131 (100.0)		
	%	100.0	100.0	100.0	100.0		

\*p<0.05

5)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학년별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유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20>과 같다. 표를 보면 ‘필요하지 않다(65.6%)’의 응답으로 희망직업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학년(33.3%)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부터 3학년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학년 중 1학년(34.9%)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4학년은 각각 ‘필요하다(50.0%)’, ‘필요하지 않다(50.0%)’의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V-20> 학년별 희망 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자격증의 필요성		전체	카이 제곱	유의 수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빈도(%)	4(11.8)	30(88.2)	12.758	.005
	%	8.9	34.9		
2	빈도	13(33.3)	26(66.7)		
	%	28.9	30.2		
3	빈도	15(46.9)	17(53.1)		
	%	33.3	19.8		
4	빈도	13(50.0)	13(50.0)		
	%	28.9	15.1		
전 체	빈도	46(34.3)	86(65.6)		
	%	100.0	100.0		

\*p<0.05

<표IV-21>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45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응답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희망관련 직업35.6%’, ‘어학관련 44.4%’, ‘컴

퓨터 관련 20.0%'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희망직업 관련', '어학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학년이 높으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1> 학년별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격증 종류

구분	필요한 자격증			전체	카이 제곱	P	
	희망직업 관련	어학관련	컴퓨터 관련				
1	빈도	1	1	2	4	5.069	.535
	%	25.0	25.0	50.0	100.0		
2	빈도	4	5	4	13		
	%	30.8	38.5	30.8	100.0		
3	빈도	6	8	1	15		
	%	40.0	53.3	6.7	100.0		
4	빈도	5	6	2	13		
	%	38.5	46.2	15.4	100.0		
전체	빈도	16	20	9	45		
	%	35.6	44.4	20.0	100.0		

\*p<0.05

#### 4.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관련성이 있는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학년별과 학년에 따른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에서 진로인식 문항 중 진로인식을 크게 진로계획 설정 여부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를 진로계획 설정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가.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기술적 통계

진로결정수준을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결정력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사회인식 부족을 역채점한 값으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 본 것으로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IV-22> 작곡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기술적 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환산 평균	응답 가능 범위
진로결정 수준	140	43.00	89.00	70.72	9.32	3.53	20~100
직업정보 부족	140	9	21	14.44	2.89	2.29	5~25
자기명확성 부족	140	4	20	14.30	3.76	3.57	4~20
결정력 부족	140	4	15	9.80	2.51	3.27	3~15
필요성 인식 부족	140	5	15	12.15	2.22	4.05	3~15
외적 장애	140	4	15	11.84	2.31	3.94	3~15
사회인식 부족	140	4	10	8.19	1.62	4.09	2~10

관찰변인의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도출해 보면, 진로결정수준 평균은 3.5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3.57, 필요성 인식 부족 4.05, 외적 장애 3.94, 사회인식 부족 4.09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 2.29, 결정력 부족 3.27을 제외한 모든 값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곡 전공生在 자기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 장애를 많이 겪지 않고 사회인식도 부족하지 않지만 직업에 대한 정보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학년별 진로결정수준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의 결과는 <표IV-23>과 같다. 표를 보면 작곡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전체 진로결정수준은 1학년 M=70.55, 2학년 M=70.52, 3학년 M=70.05, 4학년 M=72.11 으로 나타났다.

<표IV-23> 학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70.55	10.09	.265	.850
2학년	42	70.52	9.99		
3학년	35	70.05	8.45		
4학년	27	72.11	8.54		

\*p<0.05, \*\*p<0.01

이는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4학년의 설문결과가 수치상으로 미세하게 높다고는 하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알 수 없다.

1) 학년에 따른 요인별 진로결정수준

가) 학년별 직업정보 부족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직업정보 부족 차이의 결과는 <표IV-24>와 같다. 표를 보면 1학년 M=14.06, 2학년 M=14.74, 3학년 M=14.49, 4학년 M=14.44 으 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4> 학년별 직업정보 부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14.06	2.80	.358	.783
2학년	42	14.74	2.86		
3학년	35	14.49	2.91		
4학년	27	14.44	3.13		

\*p<0.05, \*\*p<0.01

이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장래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 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데 설문결과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나) 학년별 자기명확성 부족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자기명확성 차이의 결과는 <표IV-25>와 같다. 표 를 보면 1학년 M=14.36, 2학년 M=14.43, 3학년 M=13.77, 4학년 M=14.70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5> 학년별 자기명확성 부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14.36	4.24	.350	.789
2학년	42	14.43	3.72		
3학년	35	13.77	3.42		
4학년	27	14.70	3.67		

\*p<0.05, \*\*p<0.01

이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6가지 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과 함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자기명확성 부족은 학생들 자신이 적성과 흥미를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직업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학년별 결정력 부족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력 부족 차이의 결과는 <표IV-26>과 같다. 표를 보면 1학년 M=10.11, 2학년 M=9.55, 3학년 M=9.43, 4학년 M=10.26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6> 학년별 결정력 부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10.11	2.19	.878	.454
2학년	42	9.55	2.80		
3학년	35	9.43	2.24		
4학년	27	10.26	2.78		

\*p<0.05, \*\*p<0.01

이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6가지 요인보다 낮은 평균을 보인 결정성 부족은 학생들이 진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 학년별 필요성 인식 부족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필요성 인식 부족 차이의 결과는 <표IV-27>과 같다. 표를 보면 1학년 M=11.75, 2학년 M=12.02, 3학년 M=12.03, 4학년 M=13.04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7> 학년별 필요성 인식 부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11.75	2.50	1.943	.126
2학년	42	12.02	2.26		
3학년	35	12.03	2.12		
4학년	27	13.04	1.72		

\*p<0.05, \*\*p<0.01

이는 현 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설문 결과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마) 학년별 외적 장애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외적 장애 차이의 결과는 <표IV-28>과 같다. 표를 보면 1학년 M=12.11, 2학년 M=11.50, 3학년 M=12.03, 4학년 M=11.78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8> 학년별 외적 장애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12.11	2.19	.547	.651
2학년	42	11.50	2.54		
3학년	35	12.03	1.94		
4학년	27	11.78	2.58		

\*p<0.05, \*\*p<0.01

이는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나타낸다.

이는 설문 결과 차이는 없지만 학년 전체 환산평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직업 선택 시 외적 요인의 방해 없이 직업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바) 학년별 사회인식 부족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사회인식 부족 차이의 결과는 <표IV-29>와 같다. 표를 보면 1학년 M=8.17, 2학년 M=8.29, 3학년 M=8.31, 4학년 M=7.89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9> 학년별 사회인식 부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1학년	36	8.17	1.70	.425	.735
2학년	42	8.29	1.38		
3학년	35	8.31	1.59		
4학년	27	7.89	1.92		

\*p<0.05, \*\*p<0.01

이는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남을 의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내용을 나타낸다. 6가지 요인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지만 전체평균을 환산 하였을 때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외적요인과 같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다. 진로계획 설정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 1)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계획을 세운 69명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를 보면 진로결정수준 환산평균은 3.7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3.93, 필요성 인식 부족 4.29, 외적 장애 4.04, 사회인식 부족 4.24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 3.03, 결정력 부족 3.46을 제외한 모든 값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표IV-30>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환산 평균	응답 가능 범위
진로결정 수준	69	57.00	89.00	74.78	7.890	3.73	20~100
직업정보 부족	69	9	20	15.17	3.024	3.03	5~25
자기명확성 부족	69	7	20	15.74	3.095	3.93	4~20
결정력 부족	69	6	15	10.39	2.198	3.46	3~15

필요성인식 부족	69	7	15	12.87	1.862	4.29	3~15
외적장애	69	5	15	12.13	2.288	4.04	3~15
사회인식 부족	69	4	10	8.48	1.586	4.24	2~10

## 2)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71명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V-31>과 같다. 표를 보면 진로결정수준 환산평균은 3.3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3.23, 필요성 인식 부족 3.82, 외적장애 3.85, 사회인식 부족 3.95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 2.75, 결정력 부족 3.08을 제외한 모든 값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계획을 세운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이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IV-31> 진로계획 세우지 않은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환산 평균	응답 가능 범위
진로결정 수준	71	43.00	85.00	66.77	8.931	3.33	20~100
직업정보 부족	71	9	21	13.73	2.591	2.75	5~25
자기명확성 부족	71	4	20	12.90	3.829	3.23	4~20
결정력 부족	71	4	15	9.23	2.679	3.08	3~15

필요성인식 부족	71	5	15	11.45	2.329	3.82	3~15
외적장애	71	4	15	11.56	2.316	3.85	3~15
사회인식 부족	71	4	10	7.90	1.605	3.95	2~10

### 3) 진로계획 설정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상관관계

진로결정수준(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결정력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사회인식 부족)등 2차원의 변수 간에 정(+)과 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32>와 같다. 그 결과 구성 변인 중 외적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이 부(-)의 상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작곡 전공 학생들은 진로계획을 세웠을 때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IV-32> 진로계획 설정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상관관계

구분		진로결정수준							
		진로 계획 유무	직업 정보 부족	자기 명확 성 부족	결정 력 부족	필요 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사회 인식 부족	진로 결정 수준
진로 계획 유무	Pearson 상관계수	1	-.250 **	-.379 **	-.233 **	-.320 **	-.123	-.179*	-.431**
	유의수준		.003	.000	.006	.000	.147	.035	.000

직업 정보 부족	Pearson 상관계수	-.250 **	1						
	유의수준	.003							
자기 명확성 부족	Pearson 상관계수	-.379 **	.331* *	1					
	유의수준	.000	.000						
결정력 부족	Pearson 상관계수	-.233 **	.169* *	.376* *	1				
	유의수준	.006	.045	.000					
필요성 인식 부족	Pearson 상관계수	-.320 **	.000	.171* *	.206* *	1			
	유의수준	.000	.997	.044	.014				
외적 장애	Pearson 상관계수	-.123 *	.072	.194* *	.297* *	.257* *	1		
	유의수준	.147	.392	.021	.000	.002			
사회 인식 부족	Pearson 상관계수	-.179 *	.153	.034* *	.184* *	.346* *	.484** *	1	
	유의수준	.035	.072	.000	.030	.000	.000		
진로 결정 수준	Pearson 상관계수	-.431 **	.543* *	.749* *	.629* *	.487* *	.575** *	.596** *	1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0.01, \*p< 0.05

## 5. 종합토론

서울 지역의 4년제 음악대학 총 5곳의 작곡전공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남자는 40명(28.6%), 여자는 100명(71.4%), 학년별로 1학년 36명(25.7%), 2학년 42명(30.0%), 3학년 35명(25.0%), 4학년 27명(19.3%)로 나타났다.

작곡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과 만족도는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52.9%가 ‘작곡분야가 흥미로워서’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93.6%의 학생들이 대부분 전공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또한 96.4%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으로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와 진로관심도를 알아보았다. 학년별 진로계획 유무로는 ‘진로계획 세웠음’의 학생 49.3%, ‘진로계획 세우지 않았음’의 학생 50.7%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 비중으로 보았을 때 ‘진로계획 세운 학생’은 4학년(74.1%)이 가장 많았고, ‘진로계획 세우지 않은 학생’은 1학년(61.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계획을 세웠음’에 응답한 학생들 중 졸업시기가 가까워지는 3학년(31.9%)일 때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진로관심도는 전체 140명중 9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진로계획 세우지 않은 학생들도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진로에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에 관심 정도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학년은 1학년(64.3%)이며,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은 응답에서는 4학년(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희망직업으로 1학년은 ‘작곡가(52.8%)’, 2학년은 ‘작곡가 와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40.7%)’, 3학년은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42.9%)’, 4학년은 ‘작곡가(37.0%)’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희망진로인식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명을 제외한 131명을 대상으로 각 직업별, 학년별로 이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알아보았다. 직업별로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71.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구하는 학력에 ‘4년제 이상’(39.7%), ‘석사 이상’(36.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희망직업에 고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많다’(43.5%)의 응답이 높았다. 이는 대부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선택한 음악 관련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전공과의 일치는 ‘음악 외 분야’(5.3%)를 선택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희망직업과 전공이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희망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65.6%)의 응답이 높았다. 희망 진로인식을 요인별로 차이로 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직업별 결과와 같이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71.8%)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하는 학력에 1학년은 ‘학력과 상관없음(41.2%), 2학년은 ‘4년제 대졸(43.6%), 3학년은 ‘석사이상(62.5%)’ 4학년은 ‘4년제 대졸(53.8%)’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비정규직이 많다(43.5%)’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공과의 일치는 ‘그런대로 맞다(61.8%)’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문항 중 ‘전혀 맞지 않다’의 학년별 응답을 보면 1,2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3학년 6.3%, 4학년 19.2%의 응답이 나타났다. 희망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1,2,3학년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4학년은 ‘필요하다(50.0%)’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학년별로 희망 직업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평균은 3.53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사회 인식부족 4.09, 필요성 인식부족 4.05, 외적 장애 3.94, 자기명확성 부족 3.57, 결정력 부족 3.27, 직업정보 부족 2.29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학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는 1학년 M=70.55, 2학년 M=70.52, 3학년 M=70.05, 4학년 M=72.11 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설문결과가 수치상으로 미세하게 높다고는 하나 통계적으로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6가지 하위요소 별로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 더불어 개인의 경험적 차이에도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학년에 맞는 진로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상관관계로는 구성변인 중 외적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이 부(-)의 상관성이 나타나며, 작곡 전공 학생들은 진로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외적 장애를 제외한 직업정보, 자기명확성, 결정력, 필요성 인식, 사회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과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봄으로서 작곡 전공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현재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세우고 검증한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은 대부분 전공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계획 유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진로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진로에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계획성이 1학년이 낮고,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학년별로 희망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희망진로인식을 직업별, 학년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을 한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외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일수록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고학력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격증은 학년이 높고, 음악교육이나 음악 외 직업을 선택할 때 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전공 교육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본 결과, 자기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 장애를 많이 겪지 않고 사회인식도 부족하지 않지만 직업에 대한 정보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나 결정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학년별로 6가지 하위요소로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진로계획 유무에 따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만족해하며,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또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 직업 외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로결정수준에서 학년별로 차이는 없었지만 진로계획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진로계획에 따라 작곡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음악대학 작곡전공 학생들이 학년마다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계획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 만큼 작곡전공 학생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진행 될 시 개인의 적성 및 흥미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올바른 진로결정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재태, 배종훈, 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음악학과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1, 직업진로분야**,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 기영화, 성정은(2012). “음악전공자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음악응용연구, 5권 pp. 125-147.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운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2014).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운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지선(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성격과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충기(2004).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류지호(2011).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서울: 정민사
- 박윤희(2013).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원영, 김지영(2013).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 이근매, 양종국(2015). **콜라주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이나영(2011).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지향방안에 대한**

- 연구-음악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아라(2012). “관현악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공 교육과정 비교- 서울 소재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 이보현(2013).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민(2013).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하(2011). 기획적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한 음악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연, 윤희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림(2007). **진로상담**. 파주: 양서원
- 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2000). **진로지도와 상담**. 영남대학교출판부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임경희 외 11(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 임경희, 박미진, 정민선, 한수미, 이종범, 김진희, 홍지영, 문승태, 김수리, 최인화, 조봉환, 이인혁(2015).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 장석민(2014). “진로교육의 기본개념과 철학 및 실천방향”. *미래교육연구*, 27(2) pp. 29-56.
- 장선철(2015). **진로상담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 정환호, 최진호(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pp. 161-183.

-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11(3), pp. 107-120.
-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 연구, 1권. pp. 167-180.
- 한국고용정보원(편)(2011). **2012 한국 직업사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5). 취업통계연보 <http://kess.kedi.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2015). **학과정보: 작곡과**. <http://www.career.go.kr> 2016.09.13.
- 황매향, 김연진, 이승구, 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서울: 학지사
- Sharf Richard S. 저, 이재창 외 8명 공역(2008).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ABSTRACT**

## **A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in music composition major**

**Nam, Suji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eer path of students in music composition major by studying the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This study, referenced literatures on the career choices after graduation from music major and examined career decision level by grade of students in music composition major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is through career decision, career indecision, and lack of determination, than understand the degree of confidence related to the selection of their major and career, and to enhance career recognition by supplementing factors that are lacking at present.

In this stud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tudents in music composition major,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music composition at music college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s.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selection factors and interest of major, career recognition, desired career recognition and decision level. A total of 16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50 copies were retrieved, and of these 140 respondents were statistically treated except for the 10 fraudulent response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PSS,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d Pearson's ANOVA depending on the research problem.

As a result, 93.6% of students in music composition major of music college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and after graduation they set their career paths for their majors and aware of information about the career chose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grade, and 49.3% of students who set up a career plan , and 50.7% of students who did not have career plan depending on the career pla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students who set up the career plan was high.

Based on these result, college student in music major can choose from variety of career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f music education will be actively conducted so that it can be tried with differentiated education according to age.

## 부 록

### <음악대학 작곡 전공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결정수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음악대학 작곡 전공 교육과정과 진로인식 및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 비공개로 연구의 목적을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제시된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남 수 진

#### <연구자 대상 기본 항목>

성별: 남( ) 여( )

학년:

#### <전공 선택요인 및 관심도>

1.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 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 ② 작곡분야가 흥미로워서
- ③ 오랜 기간의 음악공부로 인해서
- ④ 다른 전공보다 다양하게 음악관련 일을 할 수 있어서
- ⑤ 기타(이유: )

2. 전공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어느 정도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작곡 관련 직업을 알고 있는가?

- ① 알고 있다.(5개이상) ② 조금 알고 있다.(2~3개) ③ 모른다.

**<진로 인식>**

1.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 ① 진로계획 세웠음 ② 진로계획 세우지 않았음

1-1. 계획을 세웠다면 준비한 시기는?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졸업 후

2. 진로에 관한 관심도는?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조금 있다 ④ 없다 ⑤ 잘 모르겠다.

3.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분야?

- ① 작곡가(예 : 클래식, 뮤지컬, 드라마음악, 무대음악)  
② 음악교육자(예: 교사, 강사, 개인레슨 등)  
③ 그 밖의 음악관련 분야(예: 음향엔지니어, 뮤직프로듀서, 공연예술 기획자 등)  
④ 음악 외 분야  
⑤ 잘 모르겠다.

**<희망 진로 인식>**

**진로인식 3번 문항 중 ①~④ 답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위 직업을 희망한 가장 큰 이유는? (한가지만 선택)

- ①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② 전공 분야와 일치해서  
③ 장래 전망이 좋아서  
④ 보수(임금)가 좋아서  
⑤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2. 희망하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졸 ④ 석사 이상 ⑤ 학력과 상관없음

3.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 ① 어려움 없다.  
②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많다.  
③ 근무시간이 많거나 불규칙하다.  
④ 육체적으로 힘들다.  
⑤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진로결정수준 조사>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3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전망, 보수, 사회의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4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5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6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7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8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9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0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11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12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3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14	미래의 직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5	내 인생에서 직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16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17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 및 주변에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18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19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한 주변 사람의 인식이 좋지 않다.					
20	내가 바라는 직업이 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다.					